

돌마자

Korean common gudgeon

| *Microphysogobio yaluensis* (Mori, 1928)



분 포 압록강에서 낙동강까지 서해와 남해로 흐르는 하천에 분포한다.

형 태 몸은 옆으로 길고 주둥이는 짧고 뭉툭하다. 입은 아래로 향해 있으며 말굽모양으로 되어있다. 윗입술에는 1열로 된 피질돌기가 있고 아랫입술의 가운데 뒤쪽에는 구엽이 있다. 입 주변에는 1쌍의 수염이 있으며 체색은 몸 옆면이 황갈색을 띠고 배 쪽에는 은백색을 띤다. 몸의 가운데에는 검은색의 작은 점이 8~9개 있고, 산란기 수컷은 입 주변과 가슴지느러미가 장자리에 추성이 형성된다.



돌 위에서 휴식중인 돌마자



돌마자의 서식환경은 모래와 자갈이 혼합된 곳이 좋다.



1) 환경조성

사육환경은 바닥에 모래와 자갈이 깔려 있고 유속이 적당히 있는 곳이 좋다. 바닥에 수초는 유속의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종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모래와 자갈 위에는 둥근모양의 작은 돌을 넣어주면 표면에 부착조류가 형성되면서 돌마자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 유속은 수중모터 또는 여과기를 이용하여 발생시켜주고 유속의 흐름이 너무 빠르지 않도록 수조크기에 맞추어 제품을 선택해주는 것이 좋다.



입이 아래로 향해있어 바닥의 먹이를 먹는다.

2) 먹이주기

자연에서 채집한 돌마자는 주변 사람의 움직임이나 진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조 밖으로 튀어나와 폐사하기 쉽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다가가서 주게 되면 먹이에 대한 반응 보다는 은신처로 숨기 바쁘다. 이때 수조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 덮개를 설치해주는 것이 좋다.

돌마자의 먹이는 식물성 성분이 혼합된 사료를 주거나 바닥에 가라앉는 침강성질의 사료를 주는데 주로 바닥에서 생활하는 돌마자의 경우 물위에 뜨는 부상성질의 사료를 주게 되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사료가 부패하여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 먹이주기 횟수는 3회/일 정도가 적당하며 냉동장구벌레 또는 새우류를 추가적으로 주어도 된다.



건조 장구벌레 사료



돌 위에서 휴식 중인 돌마자

✓ 돌마자와 형태가 비슷한 왜매치



왜매치 수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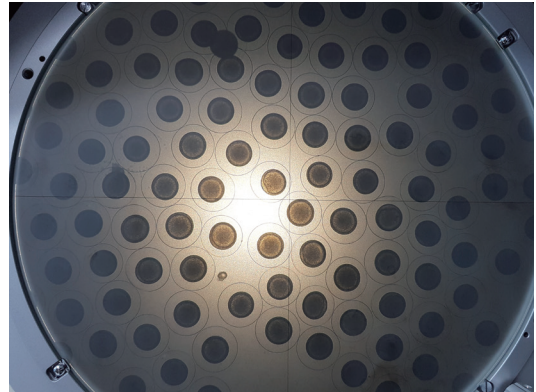
왜매치 암컷

왜매치 (*Abbottina springeri*)

임진강과 낙동강까지 서해와 남해로 흐르는 하천에 분포하는 고유어종이다. 체색은 연한 갈색이며 등 쪽이 갈색, 배 쪽은 은백색을 띤다. 몸의 옆쪽 가운데에는 7~8개의 검은 점이 배열되어 있고 등 쪽에는 5~6개의 반점이 있다.



왜매치 암컷 채란



왜매치 수정란

3) 번식방법

돌마자의 번식방법은 현재까지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으며 지금까지 사육관찰 결과 봄철 3~4월경 암컷의 복부가 볼로르기 시작하였고 5~6월 사이 수컷의 이차성징인 추성과 정액이 확인되었으며 수조바닥에는 모래 구덩이가 여러 군데 패여 있는 것으로 보아 산란흔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7월부터는 암컷의 난소가 과숙된 것으로 추정되는 백색된 알이 생식공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관찰하였다. 향후 돌마자의 성성숙 조건과 초기생활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